

연예뉴스 스테이션

본지 이해리 기자, 영화기자협 '올해의 기자'



영화 '사도'가 '제7회 올해의 영화상' 작품상을 받는다. 한국영화기자협회가 27일 오후 6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여는 '제7회 올해의 영화상' 시상식에 '사도'의 유아인과 '무뢰한'의 전도연은 각각 남녀주연상을 수상한다. 한국영화기자협회는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봉한 한국영화와 외화를 대상으로 협회 소속 기자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자(작)를 선정했다. 신인남녀상은 '소셜포비아'의 변요한과 '검은 사제들'의 박소담, 올해의 독립영화상은 안국진 감독이 연출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받는다. '올해의 외화'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이다. 영화 '오피스'의 배성우는 '올해의 발견상' 주인공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특별상 부문인 '올해의 영화인'과 소박스 최근하 팀장이 '올해의 홍보인'으로 각각 뽑혔다. 외부 심사위원단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뽑은 '올해의 기자'는 스포츠동아 이해리(사진) 기자다. 한국영화기자협회에는 50개 언론사 82명의 영화담당 기자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이승기, 2월1일 육군 헌역 입대



가수 겸 연기자 이승기가 2월 1일 육군 헌역으로 입대한다. 1987년 1월13일생인 이승기는 21일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입영통지서가 언제 나올지 몰라 그동안 입대 준비를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었다. 진짜 사나이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군 입대 소식과 함께 이날 신곡 '나 군대간다'를 발표했다. 이승기는 최근 촬영을 마친 영화 '궁합' 후반작업으로 바쁘게 지내면서 입대 전 마지막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이종석, 홍콩 마담투소 전시 앞두고 기념식



연기자 이종석(사진)이 자신의 밀랍인형의 홍콩 마담투소 전시를 앞두고 22일 현지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홍콩 마담투소에는 배우준 김수현, 동방신기(유노윤호·최강창민)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등 유명 한류스타들의 밀랍인형이 전시돼 있다. 이종석 측은 21일 "이종석이 기념식에 참석해 자신의 밀랍인형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제작을 위해 7시간에 걸쳐 신체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공략에 나선 이종석은 한중합작 드라마 '비취연인'(가제)에 출연한다.

유지태, 독립영화 상영회 열고 100명 관객 초대

배우 유지태가 독립영화 응원에 나선다. 유지태는 30일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유지태와 함께 독립영화 보기' 응원 상영회를 열고 100여 명의 관객을 초대해 영화를 함께 관람한다. 이날 유지태는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63회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제31회 바르사바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올보'(감독 이진우)를 소개한다.

조영남·김수미, KBS에는 '나를 돌아봐' 하차

가수 조영남과 배우 김수미가 KBS 2TV 예능프로그램 '나를 돌아봐'에서 나란히 하차한다. 21일 KBS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제작진은 현재 새로운 출연자를 물색하고 있다. 조영남과 김수미는 지난해 7월 '나를 돌아봐' 제작발표회에서 갈등을 드러냈고, 잇달아 하차를 선언해 제작진과 시청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후 갈등을 풀고 반년 가까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공연 랭킹

1월 15일~1월 21일 자료:인터파크

순위	공연명	주연
1	뮤지컬 <레베카>	류정환
2	뮤지컬 <레미제라블>	정성화
3	뮤지컬 <마타하리>	육주현
4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유준상
5	뮤지컬 <터닝버카드>	-
6	연극 <옥탑방 고양이> - 대학로	김선호
7	뮤지컬 <시카고>	최정민
8	뮤지컬 <헤드윅>	윤도현
9	연극 <작업의 정석> - 대학로	황재훈
10	국민연극 <라이어1반> - 대학로	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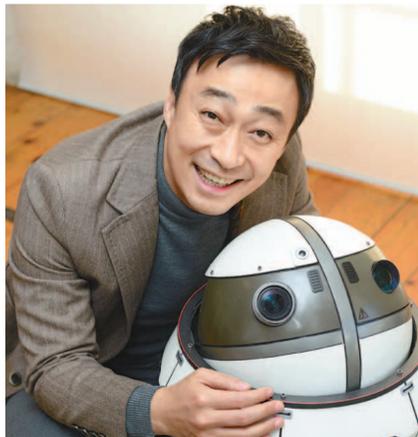
이성민의 '로봇, 소리' vs 임시완 '오빠생각'...미생의 두 남자 스크린 맞대결

'미생'의 두 남자가 '완생'이 되어 스크린으로 돌아왔다. 배우 이성민과 임시완. 2년 전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미생'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위로하며 감동을 전한 두 사람이 주연 영화를 차례로 관객 앞에 내놓는다. 임시완의 '오빠생각'이 21일 개봉한 가운데 이성민의 '로봇, 소리'가 27일 선보일 예정이다. 한때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상하관계가 분명했던 두 사람이 이번엔 물러설 수 없는 흥행 대결을 펼친다.

“내 딸과 다툰 그날, 영화 속 딸 찾아 헤맬 줄이야”

딸 키우는 입장에서 공감대 형성...아빠는 전부 그렇다 늦게 얻은 주인공 타이틀...책임감에 마냥 즐길 수 없어

“긴장돼 미칠 지경이에요. 아...” 배우 이성민(48)은 인터뷰를 시작하기도 전에 “긴장 된다”는 말을 두 번이나 꺼냈다. 영화 '로봇, 소리'(감독 이호재·제작 영화사좋은날) 개봉을 앞둔 요즘 심정이다. 주위에서는 ‘시사반응이 좋다’고 말을 건네지만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아내는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일침까지 놓았다. “안절부절, 잠도 못 잔다. 집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영화 예고편도 반복해 틀어놓는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 소리 그러라. 하하!” 남들보다 조금 늦게 얻은 영화 주인공 타이틀을 마냥 즐길 수 없는 것은 책임감이 그만큼 큰 탓이다. “잘 놀라지 않는 편이다. 오죽하면 오랜 별명인 ‘소’이겠는가. 그런 내 인생에 반란이 일어났다. 드라마 ‘골든타임’(2012년) 때였다. 감당 안 될 정도로 나를 알아봐줬다. 많이 혼란스러웠고 애써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새 (인기는)희석되고 잊혀짐도 알게 됐다. 다시 ‘미생’을 만났고 또 한번 태풍 같은 일을 겪었지만 답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는 흔들림이 없을 줄로만 알았더니 ‘로봇, 소리’를 내놓는 마음은 또 다른 눈치다. 아마도 영화에 갖는 애정.



배우 이성민은 영화 '로봇, 소리'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지난해 드라마 '미생'이 가져다준 인기가 여전히 여실히 여색하지만 "덤덤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대구라는 지역을 향한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대구에서 집사람을 처음 만나 연애를 했다. 극단 생활을 하면서 자취를 했던 곳이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간 듯, 영화를 찍을 수 있어 좋았다.” 영화는 1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아빠의 이야기다. 이성민은 “영화의 주인공이 ‘보통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비범해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아빠다.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공감했다. 영화에서 딸은 하필 아빠와 심하게 다툰 날 실종된다.” 그 장면을 촬영하던 무렵, 이성민은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던 자신의 딸과 실제로 격하게 다투었다.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놓인 예민한 딸의 마음을 미처 몰랐다”는 생각은, 뒤늦게 떠올랐다. “딸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달랬다. ‘로봇, 소리’의 아빠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다만 딸을 보호하려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딸을 가진 세상의 아빠는 전부 그렇다.” 이제 3학년생이 되는 딸은 아빠의 출연작 가운데 ‘골든타임’을 최고로 꼽는다. “미생’보다 ‘골든타임’이 좋더라. 아빠가 짜질하게 나오는 모습은 보기 싫다고 하하!”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 어린이합창단 아른아른”

촬영 내내 한상렬 소위 뒤 쫓는 기분...큰 어른 같았다 사람들은 저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깨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자 임시완(28)은 대중이 자신을 실제보다 “착하게 봐주고 있다”고 했다. 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높게 봐준다”고도 했다. 쉽게 말해 ‘과대포장’됐다든 뜻, 대중이 미처 모르는 실제 모습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꼭 얘기해야 하느냐”며 “내 이미지를 굳이 깨고 싶지는 않다”면서 웃었다. 순박함인지 노련함인지 헷갈렸다. “운도 실력이라면, 연기자 임시완은 탁월한 실력자다. 데뷔작인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시작해 영화 ‘변호인’, 드라마 ‘미생’에 이르기까지 연속 흥행을 일궈냈다. 새 영화 ‘오빠생각’(감독 이한·제작 조이레빗)은 이야기나 완성도와 별개로 ‘임시완의 흥행 유지’ 가능성면에서도 시선을 끈다. “연기하는 목적이 흥행이나 수치에 대한 욕심에 있지는 않다. 수치로 정점을 찍어왔으니 그걸로 만족한다. 성격에 대한 해방감도 느낀다.” 그는 “출기분한 마음으로 ‘오빠생각’을 택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눈앞에 어린이합창단 모습이 아른거렸고, 그 노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영화는 한국전쟁이 배경이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떠돌



임시완은 한없이 진지하고 예의바른 청년이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연기 욕심'으로 자신을 다그치고 가다듬는다.

는 아이들이 모여 합창단을 만들고, 저마다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린다. 전쟁이 주요 소재이지만 다툼이나 갈등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임시완은 아이들을 합창단으로 불러 모으는 주인공 한상

렬 소위를 연기했다. 전쟁으로 여동생을 잃은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그 비밀을 감추고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이뤄가는 똑심 있는 인물이다. 영화는 관객 앞에 공개돼 여러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임시완은 “처음부터 촬영이 끝날 때까지 한상렬의 뒤만 쫓는 기분”이라고 했다. “누구나 한계점에 이르면 화를 내고 포기할 텐데 한상렬은 다르다. 격양되지 않고 끝까지 착하고 순수하다.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어른 같았다.” 연기 욕심이 적지 않은 그이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거의 보지 않는다. 자신의 출연작 역시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본다. 남의 연기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는 배우들이 대부분이지만 임시완은 정반대의 방식. “여러 사람의 연기를 모두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누군가의 연기를 보는 일이 힘들다. 특히 연기 잘하는 배우를 보면 나도 그래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긴다. 슬데없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기분이야. 아직 연기가 뭔지도 모르고 기술도 없다. 내 것을 먼저 찾아 가다듬고 싶을 뿐이다.” 임시완은 이달 말부터 대출사기 사건을 그리는 영화 ‘원라인’ 촬영을 시작한다. ‘공격적인 행보’라고 평했더니, “아주 방어적인 행보”라고 맞받았다. “나는 감성적이기보다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런 날 깨우게 만족시킨 시나리오다.” 이해리 기자

임시완 겪어 본 이성민 연기들 조련사 다 됐다

배우 이성민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타이틀로는 ‘연기들 조련사’가 제격이다. 이성민이 최근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잇따라 아이돌 출신 연기자와 호흡을 맞추면서 상대방의 실력을 이끌어내는 조련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드라마 ‘미생’의 임시완

은 이성민과 함께한 뒤 20대 연기자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영화 ‘손님’의 이준은 이성민과 부자지간을 연기한 뒤 아예 그룹에서 탈퇴해 연기자로 전향했다. 이성민의 새로운 파트너는 그룹 2PM의 준호다. 3월 방송을 시작하는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기억’이 그 무대다. 출연을 확정된 뒤 준호를 만난 이성민은 “우리 재미있게 잘 놀아보자”는 말부터 건넸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성민이 ‘연기들 조련사’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가진 연기 가치관의 영향이기도 하다.

“함께하는 후배들이 나를 부담스러워 하지 않길 바란다”는 그는 “연기는 경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후배와 연기할 때 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는 주문만을 내어놓는다. “후배들이 (연기)사고를 쳐야 더 좋은 상황과 연기가 나온다고 믿는다.” 이를 경험한 임시완의 생각은 어떨까. “연기 잘 한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점이 남들보다 더 높아졌다”고 했다. 이성민이 임시완의 ‘눈높이’를 달라지게 한 셈이다.

‘쯔위 사태’ JYP의 대처법...극과 극 시선

‘쯔위 사태’(사진)와 관련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JYP)의 대처법을 두고 가요계 실용설계가 계속되고 있다. 한류의 중국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일선 제작자들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JYP의 대처에 대한 반감과 동조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가요계 중견 제작자인 한 기획사 대표는 “동영상과 관련해 소속사가 쯔위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현실적인 비판이 있지 않느냐”면서 “아직 미성년자인 어린 소녀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깊이 숙이는 모습은 소속사의 ‘강제사과’라는 의혹을 살 만했다”고 말한다.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JYP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인권의 문제

JYP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보내는 쪽에서는 쯔위의 사과를 동영상에 담아 공개한 것을 지적한다.

로까지 비화하는 또 다른 상황을 예상치 못한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이어 “이는 결국 대만인들을 자극했고, 대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획사 대표는 “무엇보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 대한 무지했던 상황이 빚어낸 사태”라면서 “처음부터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행위였음을 역설해야 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점에도 대다수 성을 고려해 JYP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인권의 문제

자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작자는 “그나마 JYP가 동영상 등을 통해 확실하게 사과함으로써 중국의 악화한 여론이 조금씩 사그라들었다”면서 “또 다른 한국가수들에게도 불뎠이 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JYP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쯔위 사태’가 케이팝의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 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는 21일 “쯔위 사태가 음악산업 강국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면서 “우에게 전반에서 반면교사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nmy@donga.com